

애국적 무관심과 젠더: 현대 일본의 정동(情動) 프레임*

나이토 치즈코**

| 목 차 |

I. 서(序): 트랜스내셔널한 관점으 로 폭력을 재고한다	정동
II. 애국적 무관심과 검열제도	IV. 결(結): 경제화되는 신체의 피상 성, 중상의 프레임에서 교감의 프 레임으로
III. 공창제도 안에 존재하는 치욕의	

| 논문요약 |

애국적 무관심이란 근대의 제국주의가 일본어 안에서 형성된 무관심의 회로를 베이스로 사람들의 무의식을 주술적으로 묶고 있는 일본 내셔널리즘의 형태이다. 그것은 혐오의 정동(affect)이며 동조압력·배제·강제적 동일화와 짝을 이루며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합리화한다. 그 속에는 타자에 대한 무관심, 사회적·역사적·정치적 구조에 대한 무관심이 포함된다. 자신과 타자에 대한 무관심이란 실제로는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 태도이며, 사실상 많은 이들이 이를 공유한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해주는 그 공백은 근대 천황제의 권력구조를 바탕으로 한 제국 일본의 검열 시스템과 관계가 있다. 제국적 성폭력의 구조는 복자(伏字)적 사각지대의 문제로 상징될 수 있다. 언제나 표면에 보이는 수치와 그 이면에 존재하는 비가시적인 수치가 은폐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명 존재하는데도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복자적 사각지대의 효과는 암묵적 허용에 의해 비가시적 수치인 국치, 또는 남성의 치욕을 은폐한다. 여성 신체는 젠더 규범의 평가 기준에 비추어 자기 평가를 강요받으며, 자신의 신체와 성을 상품가치라는 관점에서 점검하기를 요구받아 왔다. 이는

* 이 논문은 2019년 4월 27일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혁신'에 참석하여 발표한 것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오오즈마여자대학 일본문학과 준교수

현대사회의 ‘인적 자본’이라는 요소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인간이 인적 자본으로 보일 때 ‘인적 자원’으로 형상화된 현대의 제 신체는 잠재적 상품으로서 여성 신체가 놓인 그 장소로 잠입한다.

▪ 주제어: 애국적 무관심, 젠더, 정동, 복자, 트랜스내셔널

I. 서(序): 트랜스내셔널한 관점으로 폭력을 재고한다

국가나 내셔널리즘이 만들어내는 배타적 폭력의 구조성은 새로운 형식과 결부되어 다시금 강화되고 있다. 폭력적인 구조를 넘어, 타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상적, 비평적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트랜스내셔널한 시점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는 일본의 현상을 예로 들면서, 배타적 폭력의 구조를 젠더 비평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201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협한’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 ‘북조선’이라는 정동(affect)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이는 타자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공격적인 반응으로, 처음에는 네티 우익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점차 현실 세계에 발 딛고 있는 사회적 감성이 되어 버렸다(樋口直人 2014, 160-162; 北原みのり·朴順梨 2014, 10-28). 유치해서 다시 생각할 가치가 없는, 사려 깊지 못한 태도라고 한다면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는 무관한 현대적 감성처럼 보일지라도 이 프레임은 실제로는 근대적 제도, 또는 근대적 장치의 결과물이다. 그것은 역사나 지성과의 단절이라는 몸짓을 취하는 동시에 단절과 연속이라는 운동을 모순 없이 수행하는 정동적 프레임이며, 현대세계를 형태 짓는 폭력의 공통된 구조인 것이다.

본고의 논의는 이러한 상황을 재고하기 위하여 애국적 무관심¹⁾ 제국적

1) ‘애국적 무관심’에 대해서는 출저 『愛國的無關心』(新曜社, 2015)에서 근현대의 일본어 소설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하였다.

성폭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주디스 버틀러가 『전쟁의 구조』에서 말한 프레임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차용하여(Butler 2009) 검토하고자 한다.

II. 애국적 무관심과 검열제도

현대의 내셔널리즘은 과잉된 열기를 품고 있으나, 동시에 차가운 무관심을 기본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생각하기 위해 ‘애국적 무관심’이라는 개념적 장치를 통하여 일본의 경우를 검토하고자 한다. ‘애국적 무관심’이란 근대의 제국주의가 일본어 안에서 형성된 무관심의 회로를 베이스로 현재 시점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무의식을 주술적으로 묶고 있는 현대 일본의 내셔널리즘의 형태이다. 도대체 왜 집요하게 공격하는 정열을 가졌 으면서, 그 공격의 대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 있는 것일까?

우선, 마이네리티나 타자를 상징하는 기호 - 일본의 경우라면 ‘한국’, ‘북한’, ‘자이니치’ 등의 기호 - 에 대하여 보이는 혐오의 정동은 ‘일본’이나 ‘일본인’이라는 기호로 나타내는 동조압력과 배제의 운동을 포함한 강제적 동일화와 짝을 이룬다. 어느 쪽이든 공통적인 것은 이들 기호가 강력한 정동을 강력하게 환기시키지만 그 내실은 공백 상태라는 점에 있다.

이들 정동은 ‘배싱(bashing)’의 형식을 통해 표현된다. 공격이 예측되는 대상이나 사건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모두와 하나가 되어 공격을 가 하는데, 이것은 부담의 정동을 피하는 하나의 장치가 된다. 자신에게는 비판이 직접 돌아오지 않을 것이 분명한 대상에 대한 배싱에 참가함으로써, 부담의 감정이 해소될 뿐 아니라, 집단에 몸을 맡기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다. 그리하여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불안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 배싱이라는 형식은 그 위험을 일시적으로 잊게 하는 배출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대상이 누구든, 무엇이든 사실상 상관없는 것이다.

여러 대상에 대한 배싱이 존재하고, 그 대상이 무엇이든 배싱은 분명히 내셔널리즘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요인으로서 ‘한국’, ‘북한’, ‘중국’, ‘자이니치’라는 기호 쪽으로 폭력이 향했을 때 그 배싱에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것은 누구나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국적인 감각으로 뒷받침되는 내셔널리즘에 근거한 의견 표명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친 폭력이 될 수도 있고, 과잉된 폭력을 용인하려는 것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은 아니다’라는 막연한 인식을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공격하는 집단의 일부가 되는 것이 ‘일본인’인 자신의 자아를 뒷받침해 주므로, 불만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잊고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적으로 드러난 무언가를 공격할 때 공격하는 ‘나’는 ‘그들’을 이미지 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런 ‘나’에게 구체적 타자를 향한 관심이나 흥미는 결여된다. 그것은 임의의 기호이며 쉽게 다른 대상으로 교체될 수 있다. 기호의 알맹이는 공백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부담의 감정이 리셋(reset)되면 배성의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 공격하는 ‘나’의 개별성은 애매해진다. ‘일본인’이라는 카테고리, 복수성 속에 자신의 존재를 녹여 넣음으로써 스스로의 고유성이 소실되는 것이다. ‘일본인’이라는 기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실 추상적 이미지의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타자를 부정하여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다발이다.

구체성이 결여된 공백의 감각, 그 근저에는 타자에 대한 무관심뿐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사회적·역사적·정치적 구조에 대한 무관심이 있다. 자신과 타자에 대한 무관심이란 실제로는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탓에 알려고도 하지 않는 하나의 태도로서 많은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공백은 근대천황제의 권력 구조를 배경으로 한 제국 일본의 검열에 비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검열을 빠져나가기 위해 채택된 복자(伏字) 시스템을 의미한다.

복자는 근대 일본의 독특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이는 있지만 제국 일본이 검열을 강제한 식민지에서도 공유되었던 시스템이다(牧義之 2014, 62-69). 그대로 활자화되면 발행이 금지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문장의 일부를 출판사 측에서 ○나 × 등의 기호로 바꾸어 덮어버리는 방법이다. 복자라는 수단은 금지된 정치적 표현, 성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문장을 일부러 못 읽게 함으로써 검열에 의한 출판 금지를 피하고, 설령 읽을 수 없는 부분

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책이 독자의 손에 닿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검열에 대한 저항수단이였다.

○나 ×를 포함한 문장이 활자가 되었을 때, 그것은 읽을 수 없는 공백을 포함한 기호의 집약체, 사각(死角)을 가진 텍스트가 된다. 하지만 독자는 거기에 정치적 혹은 성적인 금지 표현이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상상할 수 있다. 독자 공동체 안에는 암묵적인 이해가 존재하고, 문맥과 글자 수로부터 내용을 추정한다. 예를 들어, ‘××’라면 ‘혁명’, ‘천황’이라는 기호가 들어갈 자리라고 추정하는 것처럼 내용을 복원하여 상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복자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원래 존재했던, 그에 대응하는 기호를 갖춘 공백의 장소이다. 그보다 엄밀한 방식으로 말하자면 공백인 듯 공백 아닌, 보이지 않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기호의 장소를 만드는 게 복자의 역할이다.

현대 일본어의 구조에서는 이 복자적 사각(死角)지대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애국적 멘탈리티의 현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사각지대를 포함한 담론의 논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정리하면서, 현대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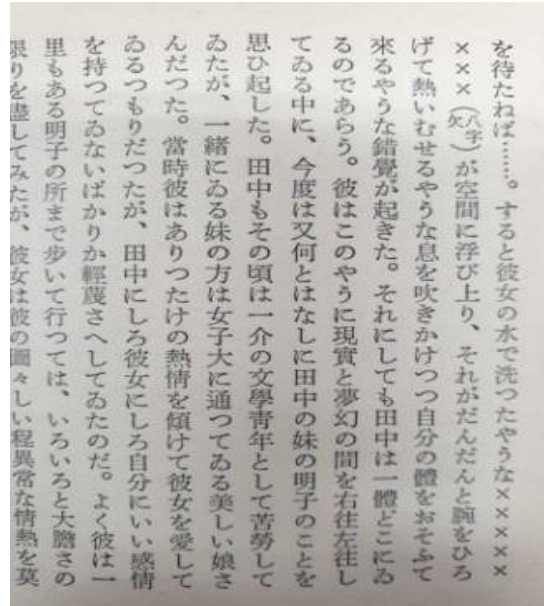
첫째, 상상 가능한 암묵적 이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호로서의 복자는 감추어진 수수께끼(謎)다. 그것은 거기에 존재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읽을 수 없는’ 것이다. 어쩌면 알고 있다는 인식은 착각이며 상정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여지가 복자에는 영원히 남아 있다.

두 번째, 정치적인 금기와 성적인 금기가 결탁했을 때 복자는 섹슈얼한 여성 이미지를 대표하는 기호로서 기능한다. 성적인 욕망을 유인하는 대상으로서 여성 신체가 상상되기 때문이다(奧成達 外 1977, 6). 더욱이 근대적인 논리구조라는 차원에 의미를 두면 복자의 알쏭달쏭함이라는 요소는 복자가 여성 젠더화되는 역학에 의해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감도는, 알쏭달쏭한 미지의 타자, 그것은 여자(女)라는 기호로 덧씌워 온 젠더 이미지에 다름 아니다.

세 번째, 복자를 포함한 문자를 읽고자 할 때 최종적으로는 복자가 무시된다는 점이다. ‘읽을 수 없지만 거기에 있는 복자’는 최소한 의미를 유출하여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 순간만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다. 복자에 연연하게 되면 의미는 한없이 멀어지기 때문에 암묵적인 룰(rule)에 따라 ‘알았다 치고’ 복자에 매달려 읽는 태도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사진 1> 식민지 조선의 작가 김사량의 단편 “천마”의 일부분



▪ 金史良(1973, 88)

• 오른쪽 첫 줄부터 둘째 줄까지 검열을 피하기 위한 복자(×)가 보임

있는 것을 ‘없다 치고’ 종합하는, 복자가 양성해내는 해석의 회로, 타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존재를 말소시키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코드야말로 근대 일본어 안에 기억되는 무관심의 구조이다. 그것은 타자를 향한 폭력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 상처 주는 행동과도 통한다. 복자적 사각지대로 인해 형성된 탓에 스스로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스스로는 알기 어렵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Ⅲ. 공창제도 안에 존재하는 치욕의 정동

복자가 여성 젠더화된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해야 하는 것은 금지와 강제에 의해 제도화되어 온 여성 신체의 입지일 것이다. 비가시적인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의미를 보완해도 좋은 기호, 그것은 항상 존재를 무시당해 온 여성이라는 기호의 위치였다. 혹은 마이너리티를 대표하고 타자의 이미지를 대항하기 위한 기호로서 기능해 온 점이야말로 수동화되고 대상화되는 여성 신체의 이미지다.

여성 신체를 둘러싼 표상 체계 속에서 금지나 강제와 손잡아 온 것은 공창제도에 있어서 착취당한 ‘창기’, ‘창부’의 신체이다. ‘창기’라는 기호는 가시와 비가시의 경계선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며, 복자(伏字)와 관계된 애국적 무관심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정동 프레임을 생각하는 열쇠가 되어주기도 한다.

우선, 내셔널리즘의 폭력을 다룬 현재의 학술적 논의로서 다음 세 가지를 간단히 확인해 두고 싶다. 첫째, 근현대의 군사주의는 젠더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남성성(남자다움)’뿐 아니라 ‘여성성(여자다움)’의 개념이 중요시되고 이용된다는 점(Enloe 2000, 4-14), 두 번째, 이성애적 젠더 관계에는 강간으로부터 매매춘, 연애, 결혼까지 모두 연속적인 ‘성폭력 연속체’ 구조라는 것(上野千鶴子 外 2018, 1-3), 세 번째, 전시 성폭력과 관련하여 ‘식민지 공창제도’라는 개념이 제출되는 한 공창제도는 군사주의와 식민지주의를 양쪽 바퀴로 하는 제국적인 성폭력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林葉子 2017, 9). 이 세 가지는 학술적인 틀로서 세계적으로도 공유되고 있는 관점이며, 중요한 것은 내셔널리즘의 폭력이 극단적으로 강하게 젠더의 구조를 필요로 하고, 폭력의 수신처가 되는 여성 신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근현대를 통하여 ‘제국적 성폭력’이라 이름할 수 있는 도식이 존재하며, 창부적 신체는 가장 가혹한 폭력을 씌우는 장소에 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창기’가 어떻게 표상되어 왔는지 돌아보면, 특히 일본이 제국주의적인 전쟁에 참여했던 1890년대에는 ‘창기’라는 기호의 주변을 치욕의 정동이 둘러싸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형적인 것으로서는, 창기는 ‘부끄러워해야 할 추한 일을 스스로 선택한

존재다’, ‘성병 검사를 할 때는 공적인 장소에서 국부를 남 앞에 드러내고도 아무렇지 않다’, ‘인간의 부끄러움을 잃은 존재다’, ‘해외로까지 이동해서 매춘하는 여성이 출현하였으니 나라의 수치다’라고 하는 논조를 예로 들 수 있다.

공창제도로부터 구축된 부끄러움의 정동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인식이 있다. 우선, 비밀이 공적으로 가시화된 상태가 부끄러워해야 할 상태라는 인식이다. 그런 제도적 상황을 개인의 신체에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프라이빗’하고 성적인 비밀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창부의 신체에 대하여 부끄러움 가득한 신체라고 규정하는 논리가 구성되었다. 즉 공창제도라는 시스템이 가진 부끄러움과 개인으로서의 창부, 그 신체를 둘러싼 부끄러움이 동일화된다는 식의 인식이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문명화된 타자이며 문명적 세계로부터 비판받는 것은 국가의 수치라는 의식이 과생되어 간다. 결국, 공창제도에 포함되는 수치, 창부의 신체가 담당하는 수치에는 국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성을 판다’, ‘신체를 판다’ 하는 것이 수치스러워 마땅한 행위라고 할 때 특징적인 포인트는 행위 주체와 책임을 창부 쪽에 둔다는 점이다. 1872년 ‘창기해방령’에 의해 창기의 자유의지가 법적으로 확인되었던 것은 매매춘을 여성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근대적 이데올로기의 기초라고도 한다(藤目ゆき 1997, 34-41). 그러나 책임의 주체로 자리 잡은 창부는 수치의 상징이 되어 간다. 나아가 성병 검사 장소에서 성기라는 신체의 비밀을 공적인 장소에서 드러내고 타자에게 보이는 것은 치욕 그 자체이며, 그러므로 창부의 신체는 수치를 느끼는 감성을 잃은, 부끄러워해야 할 신체라는 논리가 구성되어 갔다.

이상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창부의 신체가 수치를 대표하는 구성이라는 점과 창부가 대행하는 치욕에 내셔널한 치욕의 정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치욕의 정동 구조를 비평적 시각으로 뒤집어 보고자 한다. 창부가 치욕을 대표하면, 그 감추어진 이면에서 치욕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존재가 생겨난다. 그중 하나는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남성이다. 치욕의 논리로 말하면 상품화된 창부를 사는 남성은 부끄러워해야 할 존재임에 틀림없지만, 창부가 그 수치를 대표하므로 남성은 자신의 수치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처리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가부장적인 규범으로 보호

받으며 결혼제도 안에 있는 여성이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실제로는 성폭력 연속체 안에 있고 모든 여성은 창부가 대표하는 치욕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가시화된 수치를 짊어진 창부가 그것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규범을 살아가는 어머니, 처, 딸들은 치욕을 스스로 잘라내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수치라는 차원이 있다. 국가는 공창이라는 치욕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느 국가나 은폐하면서도 운영하며, 그 제도 안에서 성을 파는 창부야말로 치욕의 원천이라는 논리이다.

치욕을 창부에게 대리시켜 비가시적인 것으로 만드는 인식은 부끄러움을 둘러싼 규범으로 화(化)한다. 창부적인 삶을 산 여성들은 그 규범을 내면화하여 자신은 부끄러운 존재라는 자각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거꾸로 자신의 수치를 보지 않는 영역에 감추어진 사람들은 규범을 공유함으로써 부끄러움을 타자화할 수 있다.

이것을 앞서 확인한 내셔널리즘이 폭력과 젠더를 둘러싼 학술적인 틀과 관련지어 보면, 은폐된 비가시적 치욕은 ‘가시’와 ‘비가시’의 경계선 위에서 눈에 보이는 창기의 치욕에 연속된다고 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는 국가의 수치도, 남성의 수치도, 규범으로 지켜지는 여성의 수치도 모두가 창기의 수치와 이어져 있는 것이다. 군사주의와 식민지주의를 양쪽 바퀴로 한 제국적 성폭력의 구조는 치욕의 정동을 둘러싼 공동체의 구조인 것이며, 그곳에는 연속되는 동시에 단절된 존재의 수치가 은폐되어 있다.

IV. 결(結): 경제화되는 신체의 피상성, 증상의 프레임에서 교감의 프레임으로

이런 제국적 성폭력의 구조는 복자적 사각지대의 문제와 관련지을 수 있다. 복자 밑에 중층성을 띠게 된 수치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즉 보려고 하면 언제나 보이는 표면에 있는 창기의 수치와, 그 이면에 붙여진 비가시의 수치가 은폐되어 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복자(伏

字)적 사각지대의 효과는 암묵적 허용에 의해 비가시적 수치인 국치(國恥)나 남성의 치욕을 부재화한다. 따라서 암묵적 물로서 공공연해진 비밀, 공공연해진 수치는 오로지 창기의 이미지에 의해서만 표상되게 된다. 복자적 사각은 규범을 강화하는 형태로 작동하는 것이다.

현대의 일본에서 역사부정론자의 주장이나 넷 우익의 담론으로 표출되는 ‘위안부’에 대한 과잉된 증오는 치욕을 둘러싼 정동을 가시화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국적인 논리로 말하자면 이 치욕의 정동은 창부적인 여성의 신체에 봉인되고 국가나 남성의 수치는 비가시적인 장소에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동이란 본디 이성이나 인식의 영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간신체성(間身體性) 혹은 간주관적(間主觀的)인 회로를 통하여 신체가 불시에 그 치욕을 감지하고 그곳에 내셔널한 치욕이 접속되어 버리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 혹은, 복자가 은폐 효과를 완수하면서 동시에 은폐가 목전에 있음을 명시하는 기호인 것처럼 비가시적인 치욕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복자 아래 가시와 비가시적 치욕이 존재하는 것도 두 말할 것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가시화되었을 터인 남성화된 국치가 호출되면서 규범적인 논리를 교란한다.

이와 같이 가시적인 치욕과 비가시적인 치욕은 복자를 매개로 한 정동의 프레임 속에서 격렬하게 서로를 공격한다. 치욕의 정동은 자신과 상대 사이에서 ‘전화(轉化)’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격리된 것을 끌어당겨 접속시키는 효과도 있다.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수치를 역전시키며 상대의 수치로 만들어 중상하거나 거꾸로 상대의 수치를 굳이 자신의 것인 양 느끼는 사태는 일상적인 차원에서도 전쟁을 역사화하는 차원에서도 언젠가 일어날 수 있다(鵜飼哲 2008, 17-70). 진자를 중상적 정동 프레임, 후자를 공감적 정동 프레임이라 한다면, 분명히 현재의 세계는 중상적인 정동 프레임에 휩싸여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중상적인 정동 프레임이 기능하는 세계에서는 입장이 다른 존재들이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 상대의 부끄러움을 공격적으로 주장하게 되며, 그 결과 적과 내 편으로 이분되어 수치의 내러티브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정동 공동체가 강화되어 간다. 본디 전쟁에 관련되는 성폭력은 조국을 여성 신체로 상상하고 적이 자국의 여성을 상처입히는

것을 치욕으로 보는 ‘상상’의 형식을 띠며, 치욕의 서사는 전쟁 수행의 구실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上野千鶴子 2018, 315-316), 치욕의 정동이 공격적으로 발현될 때 세계는 제국적 정동의 서사로 회귀할 뿐이다.

이렇게 수치를 둘러싼 정동을 공감적 프레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어떠한 관점이 필요한 것일까? 주디스 버틀러는 피상성을 둘러싼 논의 속에서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폭력적 감성의 프레임, 즉 ‘전쟁의 구조’가 위험을 강요받는 현대인들을 비탄스러운 삶과 비탄스럽지 않은 삶으로 이분함으로써 정동을 컨트롤하는 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한다(Butler 2004). ‘비탄스럽지 않은 삶’ 속에는 적(敵)인 타자, 죽은 자(死者)인 타자, 마이너리티인 타자 등 복수의 위상을 포함하지만, 피상성이나 불안정성을 대표하는 이들 타자는 젠더의 제 규범을 매개로 하여 여성 젠더화되기 때문에(Butler 2015, 29-35), 특히 ‘창부’라는 기호는 애도(哀悼) 받지 못하는 타자를 상징하는 기호라 칭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모두 신체의 위태로움, 상처받기 쉬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타자에게 ‘프리캐리어스(precarius)’한 위태함이나 피상성을 떠넘기려고 하면 자기 자신의 피상성을 부정하는 대상을 동반하게 된다. 누구나가 근원적으로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상처받기 쉬움을 타자에게 대행시키는 것, 그것은 피상성을 대행할 타자에 대한 의존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타자를 적의 위치에 두고, 상처받기 쉬움을 대행시키며, 자신의 피상성을 보지 않고자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적으로 돌린 타자에게 수치를 대행시키고 자신의 수치는 보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인식 논리이다.

그러나 타자로 하여금 전화(轉化)시키고 대리하게 한 그 ‘상처받기 쉬움’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것이다. 이 중상의 반복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의 피상성을 떼 신체이다. 마찬가지로 치욕의 정동을 타자로 전화시키고 대행시킨 뒤 공격하는 것은 스스로 부정하고 비가시적인 것으로 만든 자신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결과가 된다. 즉 중상적인 프레임은 타자를 공격하는 동시에 자기를 해치는 논리이다.

끊임없이 타자와 타자에 의존한 자신을 손상시키는, 치욕을 둘러싼 중상의 반복을 폭력의 프레임에서 교감적인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타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자기를 둘러싼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 그것

이 비평적 지평을 가시화하는 첫걸음이다. 암묵적 이해에 기초하여 자신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관심을 되돌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나는 창부는 아니니까 그 치욕과는 상관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이 잠재적으로 상품화되는 근현대의 젠더구조에서 내 신체가 사실은 그 치욕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성의 경우 ‘나는 남자니까 여자의 성적인 치욕과는 상관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 있어서 잠재적으로 상품화된 여성 신체의 위치가 일반적인 신체 그 자체가 놓인 위치로 전환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상품화되고 경제화되어 온 여성 신체를 현대의 여러 가지 상황과 포개어 생각해 보면, 신자유주의적 인식이 건너온 세계 속에서 인간의 신체 그 자체가 경제적인 이미지로 변형된 양상이 떠오른다. 웬디 브라운은 이러한 상황, 즉 주체의 ‘경제화’를 논하는 문맥에서 현대인이 거래나 교환의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경쟁 가치를 강화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며, 자기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실천해가는 인적 자원의 일부로 변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Brown 2015, 33-35). 그렇다면 경제화되어 가는 현대의 신체는 근대의 여성 젠더화된 신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여성 신체는 젠더 규범의 평가 기준에 비추어 자기 평가를 강요받으며, 자신의 신체와 성을 상품가치라는 관점에서 점검하기를 요구받아 왔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적 자원’으로 형상화된 현대의 제 신체는 잠재적 상품으로서 여성 신체가 놓인 그 장소로, 잠입하여 들어가는 듯이 보인다.

인간이 인적 자본으로 보일 때 우리는 어떠한 보장도 기대할 수 없는 사회를 살며, 항상 유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타자화된 치욕을 자신의 수치와 아픔의 감각 속에 다시 불러들이는 일, 죽은 타자의 치욕을 애도할 장소를 만드는 일이 강력히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념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적’으로 보이는 상대에 대하여 말 걸기를 계속하며, 관계를 끊지 않고 지속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치욕의 서사 구조를 명확히 의식한다면, 애국적 무관심이 비가시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제국적 성폭력에 연속되는 스스로의 의지에 반하는 위치가 보일 것이다. 이해하고

싶지 않고, 관계 맺기를 거절하고 싶은 상대와의 '연결'을 의식하고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면서, 적으로 보이는 상대에 대하여 왜 감추고 싶은 것인지, 무엇을 수치라고 느끼는 것인지, 무엇에 상처받고 있는 것인지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상처로부터 타자에게 말을 거는 행위가 교감적 프레임의 출발점을 만들어 줄 것이다. 끝냄으로써 안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것'이 연결해 주는 지속적인 장소는 그렇게 함으로써 발견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金史良 (1973). “天馬.” 『金史良全集 I』. 東京: 河出書房, pp. 67-103.
- 内藤千珠子 (2015). 『愛國的無關心』. 東京: 新曜社.
- 藤目ゆき (1997). 『性の歴史學』. 東京: 不二出版.
- 林葉子 (2017). 『性を管理する帝國』. 大阪: 大阪大學出版會.
- 牧義之 (2014). 『伏字の文化史——檢閲・文學・出版』. 東京: 森話社.
- 北原みのり・朴順梨 (2014). 『奥さまは愛國』. 東京: 河出書房新社.
- 上野千鶴子 外 (2018). 『戦争と性暴力の比較史へ向けて』. 東京: 岩波書店.
- 奥成達 外 (1977). 『伏字文學事典』. 東京: 住宅新報社.
- 鵜飼哲 (2008). “ある情動の未來” 『主權のあなたで』. 東京: 岩波書店, pp. 19-70.
- 樋口直人 (2014). 『日本型排外主義』.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 Brown, Wendy (2015). *Undoing the Demos: Neoliberalism's Stealth Revolution*. New York: Zone Books.
- Butler, Judith (2004). *Prec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London & New York: Verso.
- _____ (2009). *Frames of War: When Is Life Grievable?* London & New York: Verso.
- _____ (2015). *Notes Toward a Performative Theory of Assemb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Enloe, Cynthia (2000). *Maneuvers: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Militarizing Women's Lives*. Berkeley: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논문투고일 : 2019년 11월 18일 |

| 논문심사일 : 2019년 11월 20일 |

| 게재 확정일 : 2019년 12월 13일 |

| ABSTRACT |

Nationalistic Apathy and Gender: Frames of Affect in Modern Japan

Naito, Chizuko

(Japanese Literature Department, Otsuma Women's University)

Nationalistic apathy refers to the form of Japanese nationalism in which modern imperialism exerts a spell-like power binding the unconscious of the people based on the circuits of apathy formed within the Japanese language. As an affect of disgust, nationalist apathy, together with peer pressure, exclusion, and forced assimilation, justifies indifference toward the other and includes indifference toward social, historical, and political structures. The prevalent attitude of being indifferent toward oneself and the other is to believe to know and thus not try to know even when one does not. The vacuum leading to this assumption of knowledge is related to the censorship system of the Japanese Empire, which is based on the authority of its modern imperial system. This is because the structure of sexual violence of the empire exists in a blind spot symbolized by those marks signaling its erasure. Invisible shame is always concealed behind the shame manifest on the surface. This blind spot, which renders absent what clearly exists, implicitly allows the concealing of unseeable shame, i.e., national shame, or the humiliation of men. Women have been forced to view the female body based on gender norms and examine their body and sex as a commodity. This can be applied to modern-day human capital-when a person is seen as human capital, all these bodies creep into where female bodies lie, as potential commodities.

20 아태연구 제26권 제4호 (2019)

▪ Key words: Nationalistic Apathy, Gender, Affect, Blind Spot, Transnational